

〈갯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람사협약 제정, 1억여ha 감시

글_김연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부 간사 kimyj@kfem.or.kr



국제적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의 정부중합청사 앞 1인시위 (사진: 환경운동연합 이성수)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 부양의 생태계이며 생태계의 보고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전 세계의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습지의 54%와 필리핀 망그로브 습지의 68%가 이미 사라졌으며, 일본의 습지는 앞으로 160년내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습지의 생물학적, 수리학적, 경제적 가치가 밝혀지면서 간척을 해오던 국가에서도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 97년 가입, 우포 등 2곳 등록

한편,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고, 특히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체결된 것이 바로 '람사협약'이라고 부르는 '물새들의 서식지로서 특히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2000년 현재 117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101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습지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노력인 람사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133개국의 1천200 곳의 습지 1억 300만 ha가 보호 감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용늪이 처음으로 등록되었고, 그 후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이 선정되었다.

람사협약은 습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습지를 잘 관리하면 사람

과 야생 동물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랍사협약이 정의하는 물새에게 중요한 국제적 습지는 매년 물새 한 종의 총 개체 중 1% 이상이 찾아오거나 또는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찾아오는 습지를 말한다.



‘글로벌 리스펀스’의 SOS 메시지, 미국 콜로라도

‘새만금’ 보전에 랍사도 활동 나서

우리나라에는 랍사기준에 맞는 습지가 무려 65 곳이나 있고, 그 중 48곳은 해안 습지다. 새만금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랍사의 보호 감시 지역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새만금의 경우 매년 27~30종의 물새 50만 마리가 찾아오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동아시아에서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철새가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습지이다. 또한, 새만금 일대의 2만5천 명의 어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만약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제 협약이나 조약에 의해서 보호받는 새나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랍사의 델마르 블라스코 사무국장은 새만금이 “당연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라고 강조했다며,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WWF)은 새만금을 ‘세계 200개 주요 보전지구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랍사는 1999년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랍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정책이 해안 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한다’는 랍사협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조약’의 상응한 조항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호주의 아시아습금류학회는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한국이 황해의 보석과도 같은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1년도부터 여러 국제 단체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에는 시에라 클럽, 지구의 벗 등 10여 개 국제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릴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시했고, 호주 녹색당 의원 밥 브라운과 세계 골드만상 수상자들이 공동 성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녹색당대회 참가자들은 새만금을 이슈로 하는 캠페인에 기꺼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새만금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호주 상원의원 밥 브라운, 독일 갯벌 국립공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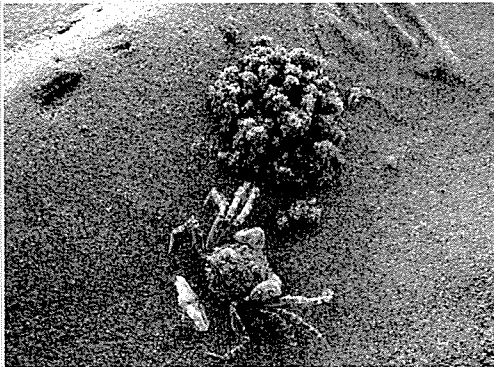
아돌프 켈러만 박사와 관계자들, 지구의 벗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 뉴질랜드의 마오리 부족 조각가 그룹, 캐나다의 환경단체, 일본의 변호사 단체 등을 비롯해서 새만금을 찾는 외국인의 발걸음이 2002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새만금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하였다.

환경운동 연합은 작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WSSD)에서도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또 작년 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랍사회에서는 일본 습지보전연대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더불어 랍사회회장 옆에서 진행된 3보 1배는 랍사회회의 공식 뉴스레터를 통해 세계로 알려졌다. 랍사회회의 결의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우려와 현명한 이용을 바라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새만금 사업의 지속여부에

가볼만한 갯벌

글_곽승국 자연과 사람들 대표



다대포, 을숙도

부산 지역의 갯벌은 주로 낙동강 하구에 형성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낙동강을 통한 토사의 퇴적으로 넓게 생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다대포 갯벌지역은 부산의 서쪽에 위치하며 해수욕장 백사장과 인접하여 바다와의 직선거리 500m 이상의 모래 갯벌을 이룬다. 이곳은 모래갯벌에 서식하는 엽낭게, 대합, 빛조개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암석지대에는 총알고둥, 무늬발게, 고랑따개비, 참굴 등을 볼 수 있다. 가는 길은 시내버스 2번, 11번, 기차 부산역 도착 후 2번, 98번 버스, 지하철 신평역 도착 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을숙도 갯벌,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갯벌에는 매년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지역이다. 특히 갈대지역이 많아 말뚝게, 도둑게, 방게와 각종 갯벌생물, 새들이 터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겨울 탐조지역으로는 최적지이다. 또한 명지 녹산 갯벌은 펄갯벌로 엽낭게, 칠게, 방게, 길게 넓적공게 등이 살고 있다. 또한 굴 증파 양식장이 있어 넓은 갯벌과 함께 볼 만하다. 가는 길은 부산하단에서 진해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낙동강 하구둑이 나오면 바다쪽으로 을숙도가 보이고 20여분 더 가면 녹산, 명지 갯벌이 보인다.

남해도

남해도는 갯벌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갯벌환경을 가지고 있다. 펄이 많은 창선의 동대만 갯벌, 모래와 펄이 섞여있는 설천 갯벌, 모래가 많은 둔촌 갯벌, 암석조간대를 볼 수 있는 가천 등 다양한 갯벌을 경험하기엔 남해도가 최적적이다. 가는 길은 남해고속도로 하동, 진교C에서 남해 방향으로 진입하여 남해 해안 일주도로를 돌면 주변으로 갯벌이 산재되어 있다.

대해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65일간 펼쳐졌던 종교인들의 3보1배가 각종 사진과 영상, 글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국제단체 지구의 벗과 글로벌 리스펀스(미국본부), 일본 습지보전연대, 호주의 Bird Australia, 제3세계네트워크 등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2천여 통의 이메일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미국의 콜로라도와 포틀랜드,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SOS(Save Our Saemangeum 우리의 새만금을 살리자) 라는 피켓을 든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이밖에 50여 개의 환경단체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새만금 갯벌을 찾는 철새들을 보호하고자하는 촉구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



글쓴이는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사회연대담당



인천부근

인천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송도 갯벌과 인천 남쪽에는 시흥 갯벌, 시화 갯벌, 화옹지구 갯벌, 남양 갯벌 등이 있다. 이들 갯벌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미 간척되었거나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시흥 갯벌 등 여러 갯벌에는 아직 염전 또는 폐염전이 남아 있으며, 특히 시흥 갯벌은 염생식물과 염전이 갯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나타내는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강화도

강화도는 한강의 하구로 일찍부터 갯벌이 발달하였다. 서울 근교 갯벌체험장소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놀이식, 잡이식 갯벌체험으로 갯벌이 많이 황폐해지고 있어 출입지역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갯벌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길상면의 향

산도(초지리), 장흥리, 화도면의 동막리, 장화리 갯벌 중 지정된 장소와 석모도 매음리의 민머루 해변이며 전방 50m까지만 나아갈 수 있다. 가는 길은 서울 신촌, 영등포역, 인천 터미널에서 강화도행 시외버스를 타고 강화도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석모도는 외포나루에서 배로 들어가야 한다.

고창 곰소만

고창의 곰소만 주변지역은 만내에 비교적 넓은 갯벌이 존재하며, 만 입구의 남북으로 해안선을 따라 길게 분포되어 있다. 달랑계, 세스랑계, 길계, 칠계, 썩 등 다양한 갯벌 생물을 볼 수 있으며 조금만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갯벌 파괴의 현장인 새만금 사업현장이 나온다. 가는 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졸포IC, 선운산IC에서 고창쪽으로 가면 된다.

